

“나는 여자다”

원 종 옥 (세종대학교 응용화학과)



나는 여자다. 적어도 “지도를 입을 줄” 알지만, 돌려가며 읽는다. 운전은 앞만 보고하고, 어쩌다 물건 사러 갔을 때 꼭 찬 주차장에서, 도우미의 후진 주차 명령은 거의 죽음이다. 사소한 일에 잘 토라지고, 한 그릇의 팔빙수에 기뻐한다. 한겨울 김모락 나는 오텍 국물에 감동하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향 좋은 커피 한잔에 마냥 행복해 한다. 성격적으로 생리적으로 분명 난 여자다. 그러니까 이런 컬럼을 쓸 수 있는 행운도 왔을 것이다.

월드컵이 한창일 때, 시청앞 나가는 버스 속에서 홍명보의 자서전이 잘 읽힌다는 기사를 들었다. 나보다도 어린 사람이 벌써 자서전을?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곧 포기했다. 생각해보니 홍명보 같은 드라마틱한 인생여정이 나에겐 없다. 난 평범하고 평탄하게 살아왔다. 여자라고 느끼며 산 기억도 별로 없다. 난 남동생과 거의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자랐다. 내 남동생은 할말이 많을 거다. 우대는커녕 항상 누나의 물건을 물려받았어야 했으니...

박사 학위를 받고나서 여자라서 느낀 좌절은 있었다. 근무하고 싶었던 회사에 여자라는 이유로 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갖고 연구소로,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 “여성과학자”로서의 비애(?)는 그렇게 흘러져 간다.

가끔, 여자란 건 무기다. 중국집에 간다. 양념 닭튀김을 먹고 싶어들 한다. 나는 닭을 먹지 않는다. 내가 남자였으면, “짜샤~” 소리와 함께 맞고 먹든지, 굶든지 해야겠지만, 적어도 나는 군만두라도 얻어먹는다. 폭탄주를 돌린다. 나는 먹고 싶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 분위기 켜다는 공포 분위기나, 별주는 거의 없다. 먹고 싶으면 마시고, 취한다.

이렇게 난 여자라서 누리는 혜택을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다. 한편엔 여성의 지위를 이만큼 올리는데 노력한 눈물나게 힘겨웠던 선배들의 땀이 있다는 걸 안다. 그런 여러 선배들의 노력으로 이 후배는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함으로 남성들이 혼란스러워진 것 같다. 여성을 어떻게 대우해야 동료로 대우하는 지에 대한 지표가 없어 보인다. 물론 여성도 어떻게 남성과 일을 같이 잘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른다. 게다가 여자와 남자는 뇌의 회로마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그러니 이걸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방향을 정해가기로 하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성에서 왔든, 화성에서 왔든, 아니면 소혹성 B612에서 왔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여성과 남성이 아닌, 한 “사람”으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원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 명성, 소속감, 성취감, 새로운 경험, 자기 삶의 주도, 자유, 사랑... 등이라고 한다. 사람들마다 우선 순위는 다르겠지만, 나도 이중에 몇몇을 위해 일을 한다. 그리고 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주 내 능력에의 도전을 받지만, 가끔 그것을 해 냈을 때의 사소한 성취감이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다.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의 감정 변화만을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한다. 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죽을 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소소한 재미가 있어야 한다. 뜻밖에 많은 사람들이 전공(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힘들다고들 한다. 전공(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알게 된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그만 두고, 맞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수명이 100세가 넘을 거라고 한다. 그런데 전공이라는 학위를 받는 그 수년 때문에 남은 수십 년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슬픔이다.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있어야, 나 스스로 만족하고 하는 일에 자신이 생길 거다.

그렇게 보면, 난 운이 좋은 여자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슴 터지도록 흥분되게 재미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끔은 호기심과 기대로, 아침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게 할 만큼의 재미가 있다. 그리고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과학자”라는 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다는 신선함과 자부심이 있다.

그리고 꾸준히 자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속히 바뀌는 불투명한 미래에 자부심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나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잘 관리하고, 성장하면서 시대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한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내 후배들도 그렇게 살아가 주면 좋겠다.

내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 너무 거창하다. 지금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따뜻한 군고구마 한 봉지를 사서, 소파에 길게 누워 영화를 보고 싶다.